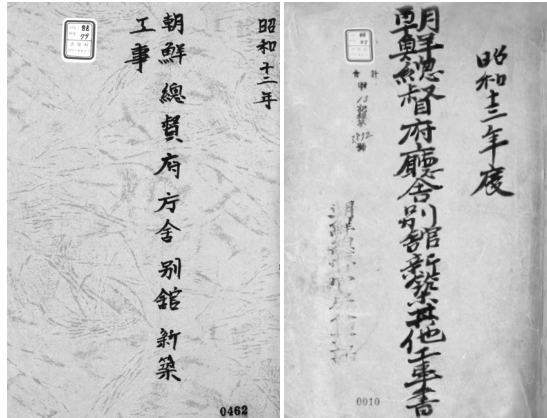


조선총독부청사(朝鮮總督府廳舍) 관련 기록물철



관리번호	문서번호	생산년도	생산기관	M/F번호	총면수
CJA0012788	88-79	1937	총독관방 회계과	88-1173	66면
CJA0012832	88-87	1937~1938	"	88-1176	36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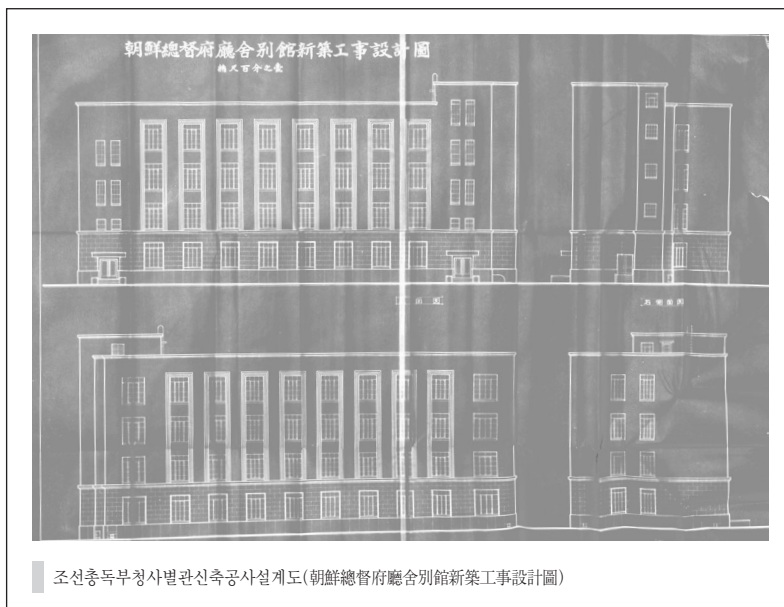
이 기록물철들은 1937년에서 1938년 사이에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別館)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일제의 한국 강제합병 이후 조선총독부는 통감부청사를 총독부청사로서 사용하였는데, 식민지 통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간 부족과 기구확대를 이유로 내세워 통감부 시대부터 사용하고 있던 남산 청사 대신에 경복궁 근정전(勤政殿) 바로 앞에다 새로운 총독부 청사의 건립을 계획하여 1916년에 착공하고 1926년에 완공하였다. 착공에서부터 10년간에 걸쳐 완성된 이 청사는 지하층과 지상 4층의 일(日)자형의 평면으로 된 건물인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서 주간(柱間)의 벽을 벽돌로 채우고 외부에 면하는 부분과 중정(中庭) 내 정두리는 화강석을 첨부하고 기타 중정 내·외벽은 전부 인조석 바르기로 하였고, 중앙부에는 둠이 올려져 있는 르네상스 양식의 근대식 건물이다. 이 건물의 설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도쿄대학 출신의 건축 기술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조선인 노동자가 연인원 약 200만명 정도 동원되었는데, 조선총독부는 당시 남산의 조선신궁과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었다. 이후 1937년에 지어지는 총독부청사의 별관 역시 근대적 형식의 4층 건물로 이 기록물철에는 <사양서>와 <설계도>가 있어 일제시기 근대건축물의 형식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신축공사(朝鮮總督府廳舍別館新築工事)》(CJA0012832)는 총독부 별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서류들의 편철이다. 기록물철의 생산기관은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회계과로 1930년 이후부터 건축관계 부서로 자리잡았다.

<사양서>는 1937년 2월 8일 기안된 회계 갑(甲) 12 기록 제3702호 서류이다. 여기에는 별관 4층 건물 1동을 철근 콘크리트와 벽돌로 짓는다는 것을 공사목록에서 제시하고, 공사개요에서는 건물위치, 건물의 높이, 기초, 주체구조, 벽, 상판(床版), 지붕, 외벽완성과 기타, 창호, 도장(塗裝), 내부완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건물의 전체 건평은 985.44평으로, 건물은 조선총독부 구내에 위치하며, 기둥과 들보, 계단 등은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 건물의 외부는 벽돌로 하고 내부 일부는 나무로 만들도록 설계되었다. 건물의 내부는 현관, 1~4층의 홀, 각 층의 사무실, 계단실, 계단, 계단 아래의 물품 저장소, 세면소, 변소, 파이프실, 엘리베이터실, 기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가설공사, 기초공사, 벽돌공사, 석공사, 철근을 섞는 흙공사, 방수공사, 철물공사, 목공사, 미장이 공사, 의석(擬石)공사, 타일 붙이기 공사, 창호(建具)공사, 도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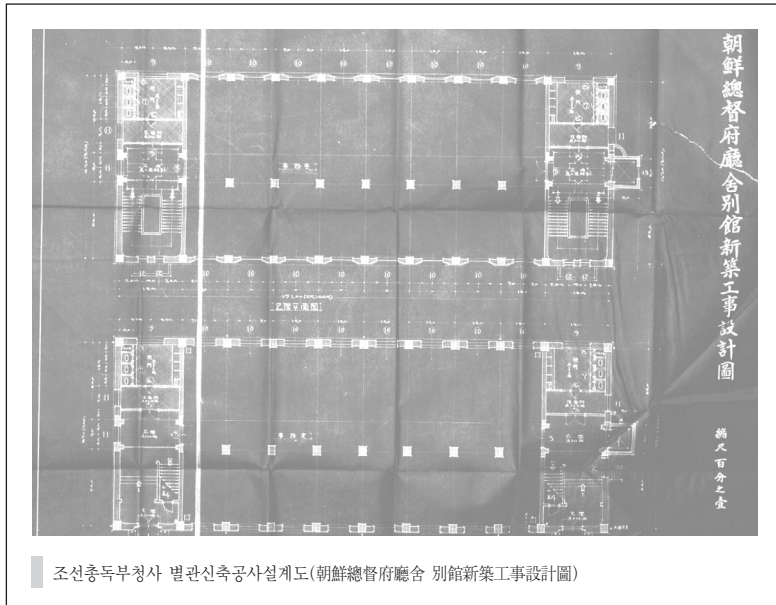
잡공사로 나뉘어 지는데, 각 공사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양서의 끝에는 5개 항목에 걸친 일반 주의사항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은 1) 도면이나 사양서에 빠져 있거나 분명치 못한 곳 중 마땅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곳은 관계원의 지휘를 받아 시공한다는 것, 2)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전에 관계원의 검사를 받을 것, 3) 이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전기·난방·위생공사 등은 별도 공사로 시공할 필요에는 상호 연락하여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준공 후 건물의 안팎과 부지내 정리, 5) 준공기한 날짜는 착수 월 일로부터 260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설계도면은 1/600 축척의 <배치도>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축 별관은 조선총독부 청사의 서북쪽 근정문 옆에 세우는 것으로 긴 장방형의 구조로 건설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100 축척의 <건물 평면도>에 따르면 별관 각층의 양쪽으로 비상계단과 계단 및 화장실, 세면실 등이 배치되고 건물의 가운데에 사무실이 두어지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의 건물의 외양을 알 수 있는 것으로 1/100 축척의 건물의 앞면, 뒷면, 좌우 측면의 <입면도>가 있고, 이어서 건물의 설비에 쓰이는 <건구표(建具表)>가 있다. 이의 건물의 내부 구조와 관련해서는 1/100 축척의 <지하들보 및 기초 평면도>, 1/100 축척의 건물 각 층의 <상량(床梁)평면도>, 1/20 축척의 <설계도>, 건물 앞·뒤·좌·우면과 건물 내부 각층에 대한 <설계도>를 통해서 별관의 상세한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별관신축기타공사서(朝鮮總督府別館新築其他工事書)》(CJA0012832)은 1937년부터 1938년 사이에 조선총독부 관방회계과에서 실시한 조선총독부 별관 신축 기타 공사에 관한 서류의 편철이다.

이 기록물철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신축공사 부분이고, 두 번째는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커튼 신설공사 부분이다. 세 번째는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전기설비공사 부분이고, 네 번째는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증기난방장치 기타 공사 부분이며, 다섯 번째는 조선총독부 별관 축정공사 부분이다. 기록물의 편철은 회계과의 승인 문건을 중심으로, 관련 문건이 첨부되거나 부속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편철 원칙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으나 이 문서에는 더러 잘못 편철된 문건도 있어, 그런 경우 적절하게 표시하였다.

첫 번째로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신축공사 부분이다. 먼저 공사청부 계약과 관련한 <공사청부 수의계약 체결의 건>은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신축공사의 계약 체결 문건이다. 첨부된 <공사청부계약서>를 통해 공사비가 189,700원이고, 공사기간은 1937년 3월 26일에 기공하여



조선총독부청사 별관신축공사설계도(朝鮮總督府廳舍別館新築工事設計圖)

1938년 5월 31일에 완공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공사 추가의 시행과 관련한 〈공사 추가 시행에 관한 건〉은 오수정화조 신축 기타 공사의 추가와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을 승인하는 문건이다. 여기에는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오수정화조 신설 기타 공사 내역서〉,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오수정화조 신설 기타 공사 예정가격하조서〉,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오수정화조 신설 기타 공사 사양서〉가 부속되어 있다.

그 외 공사비의 지불과 관련한 〈지출결의서〉, 〈청부금내도청구서〉, 〈공사기체부분검사조서〉와 〈공사기체부분내역서〉 및 〈검사제재료내역서〉, 〈준공검사조서〉, 〈공사준공검사원〉, 〈가인계서〉 및 〈공사 준공내역서〉와 보다 상세한 〈공사 준공내역서〉가 부속되어 있다.

두 번째로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커튼 신설공사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8년 2월 23일 회계과의 〈공사집행 및 지출결의서〉는 공사 집행과 지출 관련 문건으로, 회계과의 요구 사항인 승낙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총독부 기사가 작성한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커튼 신설공사 예정가격하조서〉, 1월 14일 회계과에 제출된 5매의 〈견적서〉, 청부인이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와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커튼 신설공사 사양서〉가 부속되어 있다. 도면으로는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커튼 신설공사 설계도〉(1/20, 1/100)가 첨부되었다. 이어서 3월 18일 청부인이 제출한 〈기공계〉, 2월 22일 검사관리인 총독부 기수가

작성한 <준공검사조서>, 2월 16일 청부인이 제출한 <준공어계>가 편철되어 있다.

세 번째로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전기설비공사 부분은 공사청부계약과 관련한 <공사청부 수의계약 체결의 건>, <공사청부계약서>와 공사 준공불과 관련한 <지출결의서>, <청부금청 구서>, <준공검사조서>, <준공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번째로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증기난방장치 기타 공사 부분은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증기난방장치 기타 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공사청부 수의계약 체결의 건>, <예정가격조서>, <청부인조서>,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증기난방장치 기타 공사 예정가격하조서>, <공사청 부계약서> 등과 공사 설계 변경과 관련한 <공사 설계 변경의 건>, <설계변경승낙서>, <설계 변경공비증감내역서> 및 <조선총독부 청사 별관 증기난방장치 기타 공사 설계 변경 사양서> 그리고 공사비 준공불과 관련한 <지출결의서>, <청부금액 청구서>, <준공검사조서>, <준공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 번째로 조선총독부 별관 축정공사 관련 문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38년 7월 14일 회계과의 <공사집행 및 지출결의서>에는 <승낙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이어서 <총독부 별관 축정공사 예정가격하조서>, 회계과장에게 제출된 <견적서> 2매, <총독부 별 관 축정공사 사양서>, <총독부 별관 축정공사 설계도>가 부속되어 있다. 계속하여 6월 29일 청부인이 제출한 <기공계>와 7월 12일 청부인이 제출한 <준공어계>가 편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별관 신축공사를 비롯한 기타 관련 공사의 과정에서 회계과와 공사 청부인 및 현장독역원이나 검사관리가 주고받은 각종 서류들로 공사의 구체적 진행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최원규)